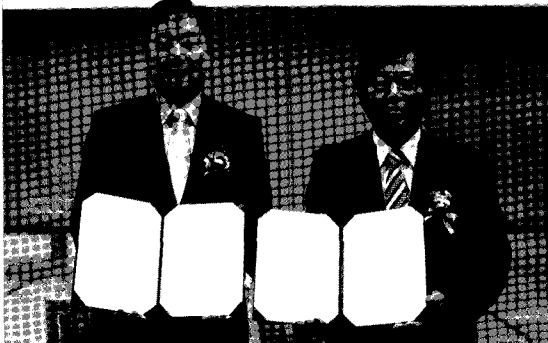


(주)하림

농가와 회사간 상생 협약식 개최

2015. 하림 사육농가 조수익 1.5억



(주)하림(회장 김홍국)은 지난 9월 14일 전주 코아리베라 호텔에서 회사와 농가간의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문용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5년 전 전채농가의 연 평균 매출 1억원 달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농가와 회사가 서로 노력한 결과 올해 1억원을 돌파하는 뜻 깊은 자리에 서게 되어서 가슴이 떨린다”고 밝혔다.

정문성 1본부장은 상생 전략에 대해 “양계산업의 향후 비약적인 발전 가능성과 대외 경쟁력 측면에서 미국이나 브라질에 비해 원가가 높으나 앞으로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일본의 시장개척과 원가절감을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닭 사육확대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닭 사육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시설개선을 통해서 보다 나은 환경으로 건강한 닭을 생산할 수 있

음을 역설했다.

또한 최근 하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코캐피탈(eco capital)을 비롯해서 계열화자금, 시설현대화자금 등을 통해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계사를 신축할 수 있고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도 설명했다. 예전에는 계사 신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계사신축을 목적으로 땅을 구하고 계사를 신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해오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퇴직자들이나 농가들 사이에서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 중에서 양계만한 사업이 없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앤드류 본(미국 COBB社)의 대닭 사육 기술에 대한 교육과 현재 자연실록 사육을 하면서 소득 향상을 실천한 농가들의 인터뷰 영상이 이어지면서 행사장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믿음과 미래에 대한 밝은 비전을 다짐하면서 행사는 성료됐다.

실천적 리더십 교육 실시

(주)하림은 생산직 반장과 동아리 리더 대상으로 현장 리더십교육을 전북 부안에 위치한 썬리치랜드에서 지난 8월 17일 1차를 시작으로 총 4차수까지 97명이 수료했다.

본 교육 과정은 목표 찾기, 조직 내 역할과 책임 의식 강화, 일류현장을 만드는 실천적 리더육성, 효과적인 코칭 스킬능력 향상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눈길을 끌었던 과정으로 실천적 리더육성 과정은 평소 어떠한 성공으로도 느낄 수 없었던 강력한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성공에 대한 성취의 경



힘을 느낄 수 있었으며, 자신의 삶에 짜릿한 전율과 함께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효

과적인 방법으로 조직구성원이 자주적으로 최대의 노력을 하기 위해 작용하는 리더의 영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2본부, 대리점 간담회 개최

(주)하림 2본부에서는 2011년 1월 포장유통 의무화 전면 시행과 관련 각 대리점이 이러한 변화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간담회를 겸한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하림 신선육의 매출포지션은 벌크 60% 대 포장육 40%의 매출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유통점 및 급식을 제외한 대리점 채널에서의 벌크사용량은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 판매 구조로는 '포장유통 전면시행'에 따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 자명함으로 2본부 마케팅실이 주관이 되어 지역별 대리점 간담회를 준비하여 '포장유통 전면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는 이문용 사장과 이국진 전무 등 하림의 최고위층 임원들이 직접 전국을 순회하며 대리점주에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정책 및 시장에 성공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20일	10월 21일
지역(지점명)	동부 북부지점	서부 인천지점	대전, 전주, 광주지점	대구, 동/서부산
참석자(명)	42	31	45	46

'우리나라 안전축산물 소비자 한마당'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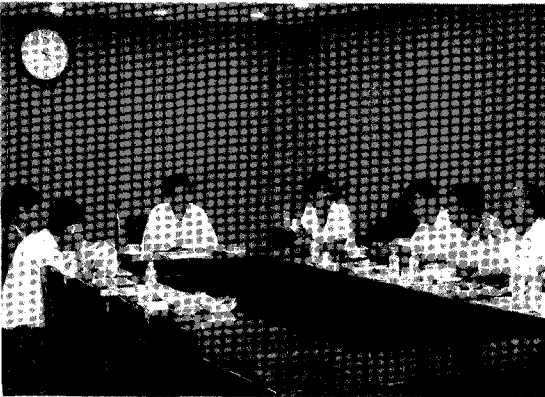


(주)하림은 지난 9월 2일~4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1층 전시장에서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0년 제4회 우리나라 안전축산물 소비자 한마당'에 참여해 계속업계 선두기업으로의 브랜드 이미지 및 제품 우수성에 대해 홍보했다.

또한 친환경 프리미엄 닭고기 '자연실록', '자연실록 토종닭'과 '슬림닭가슴살캔' 홍보를 중점적으로 시행했다.

(주)마니커

중국 삼문협시 시장단 동두천공장 방문



중국 하남성 삼문협(三門峽)시의 양수평 시장 등 시장단 6명이 지난 9월 2일 (주)마니커(회장 한형석) 동두천공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정지상 공장장의 안내로 약 1시간에 걸쳐 (주)마니커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생산시설을 견학했다.

양수평 시장은 작년 6월에 새로 들어선 (주)마니커 동두천공장의 현대적인 시설과 처리능력에 감탄을 표하고, 삼문협시와의 교류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삼문협시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황하 기슭의 도시로, 동두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양시(兩市)는 현재 산업 측면에서의 교류도 모색하고 있다.

용인시민의 날 축제 참가

(주)마니커가 협찬사로 참여한 90만 용인시민의 큰 잔치 2010 용인시민의 날 축제가 열렸다.

용인시민의 날 축제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용인 행정타운 등 시내 각 지역에서 열렸는데 음식문화축제와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다.

(주)마니커는 매년 이 행사에 협찬사로 참여하면서 시식행사 등을 통해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육가공 추석 선물세트 3년 연속 매진 기록

추석을 맞아 판매한 마니커 육가공 추석 선물세트가 3년 연속 조기품절 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주)마니커는 과거 사례를 거울삼아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양을 준비하고 판매에 들어갔으나, 예전에 구매했던 고객의 재구매는 물론 신규수요까지 몰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판매가 종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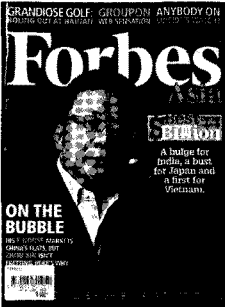
이에 따라 육가공 선물세트를 준비했던 마니커 F&G에서는 주문고객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마니커F&G에서는 구매고객들의 호평과 재구매에 힘입어 내년 설에는 선물세트 생산물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주)동우

아시아 200대 유망 기업에 선정

Forbes Asia 2010년 9월호 포브스가 발표한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에 (주)동우(회장 김동수,



대표이사 정창영)가 선정되었다.

포브스는 매년 연매출 10억달러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시장가치, 성장가능성, 부채비율 등을 종합 평가해

아시아 200대 유망 기업을 선정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2개의 기업이 선정되었다.

2010년 VIV CHINA 참관



지난 9월 6일~9일까지 열린 2010년 중국 국제 축산기술박람회에 (주)동우 임직원 10명이 참관했다.

김종관 전무이사의 인솔하에 박람회를 참관한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알찬 박람회라고 평했다.

(주)동우는 지난 10여년간 매년 우수사원을 선발하여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올해 2010년 4월에 일본 국제 식육박람회에도 우수사원을 박람회 참관을 추진한 바 있다.

(주)체리부로

창립 19주년 기념식 개최



올해 9월 7일로 19번째 생일을 맞은 (주)체리부로(회장 김인식)는 진천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1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창립 이후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 보고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변모하고 있는 (주)체리부로 오늘의 모습에 대해 김인식 대표이사는 “지난 19년 동안 이루어온 체리부로의 모든 것은 임직원의 열정과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신규 투자 사업이 안정되는 내년에는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옥 부회장은 건배 제의를 통해 “체리부로는 해를 거듭할수록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업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고객에게 더 가까이”라는 건배사를 남겼다.

기념사 후 체리부로 전 임직원들은 내일의 성장을 위한 다짐과 함께 박수를 치며 기념식을 자축했다.

영업본부 워크샵 실시



(주)체리부로는 지난 8월 28일, 29일 양일간 충북 진천군 덕산면 소재 삼흥관광농원에서 임원진과 영업본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샵을 실시했다.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성장 전략수립을 위해 개최한 이번 워크샵에서 각 영업팀은 새롭게 변화된 영업조직을 바탕으로 성장목표달성을 공유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열띤 의견교환과 토론을 벌였다.

이선기 부회장은 “시장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체리부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인 의식을 갖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이후에 단체운동과 산행을 통해 유대감을 돈독히 한 영업본부 임직원 모두는 목표달성을 위해 굳은 결의를 다졌다.

고객 방문 프로그램 큰 호응 불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체리부로 진천 공장을 일일 견학하는 고객 방문 프로그램이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2010년 고객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고객 방문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생산현장 견학을 통해 닭고기에 대한 올바른 구매 기준 정보제공 및 이해도 향상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45명 이하의 단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리부로 공장 견학 프로그램은 8월까지 총 6,000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했으며, 현재 10월 말까지 견학 예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다.

(주)체리부로 공장견학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체리부로 홈페이지(www.cherrybr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닭고기 수출규격화 방안 모색 국제 심포지엄 참석

(주)체리부로는 지난 9월 15일 전북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한국계육협회 주최로 열린 닭고기 수출규격화 방안 모색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농림수산물부 및 김제시, 중앙·지방 지도기관 등의 유관기관과 한국계육협회 회원사 및 계열농가를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대형 닭고기 생산 및 비정상 도체 저감을 주제로 국·내외 업체들의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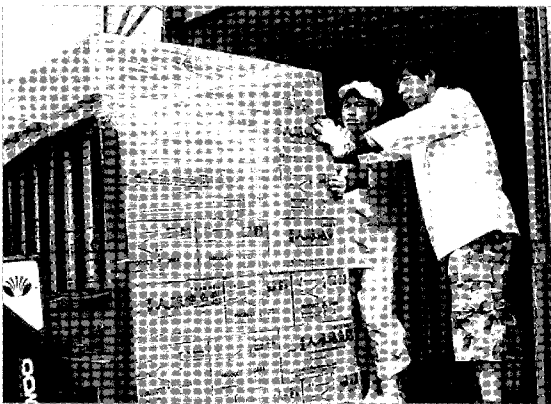
(주)체리부로의 김강홍 차장은 상처방법, 어리장 구조, 육계 전기실신, 탕침 온도의 개선을 통한 운송 및 도계과정에서 도체이상 저감기술을 발표하여 참가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김강홍 차장은 “우리나라의 닭고기 시장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유관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공유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주)체리부로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설비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내 육계산업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화인코리아

대만에 인삼닭죽 수출



(주)화인코리아(대표이사 나원주)의 죽 수출이 외 화벌이와 함께 남아도는 쌀 소비로 고민하는 농가들의 근심을 더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주)화인코리아는 올해 130만 봉지의 인삼 닭죽 등을 수출, 모두 436만달러의 수출실적이 예상된다.

8월 말까지 실적은 186만달러, 연말까지는 250만달러 수출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을 보고 있다.

첫 수출을 시작한 2008년 215만달러, 지난해 307만달러 수출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인삼닭죽과 전복죽, 오리죽 등으로 공급량 기준으로 1천200여톤이 넘는다.

특히 수출제품이 죽인 만큼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쌀로 무려 400여톤을 소비했다.

나락으로 환산하면 40kg들이 1만7천여가마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게다가 쌀 이외에 대추, 은행, 황기 등이 들어가는 관련 약재와 농산물 소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는 전남지역 쌀 재고량이 40만톤을 넘는 등 쌀 소비가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대규모 소비처를 새롭게 개척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동남아와 일본, 미국, 유럽 등 수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죽 시장에 대한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현재 수출실적의 10배 이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출 주 대상국인 대만 국민이 선호하는 인삼을 활용해 건강식품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포장지 개선 등 마케팅도 강화했다.

또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일부 국가에 중단됐던 닭과 오리 등의 수출재개가 가능해 수출 물량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화인코리아 나원주 대표이사는 “쌀 소비 대책이 농정의 최대 현안이 됐다”며 “연간 수백톤의 쌀을 소비하는 만큼 최소한 시식용이나 홍보용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